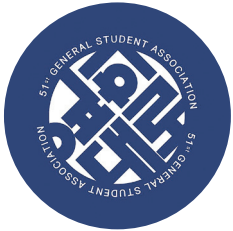


총학생회 공약 중간점검

제51대
총학생회



이름

함께
꿈을
경험을
이·무·다
이·무·다
이·무·다

#. 지난해 11월, 2019년을 이끌어 갈 새로운 학생 대표자가 뽑혔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경희대로’ 선거운동본부(선본)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정후보와 김영우(호텔경영학 2016) 부후보가 3경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35.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는 ‘이름’ 선본 전완주(일본어학 2015) 정후보와 이지은(산업경영공학 2015) 부후보가 경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52.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선거 기간 ‘경희대로’는 크게 학원의 자주화를 통한 교육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름’은 건물 리모델링, 투명한 정보 공개, 교육·복지·환경 개선, 캠퍼스 이원화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9학년도 1학기가 마무리되는 지금 양 캠퍼스 제51대 총학생회가 당선 이후 약 5개월의 임기 동안 학생의 지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약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소통에 주력...주요 공약 실현 미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지난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선거 당시 경희대로 선본은 졸업이수 학점 축소 문제 대응, 공간부족 해소, 아람원과 한의/이과/간호 단과대학동 정식 사용승인 확보,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유도를 통한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의 학생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캠 졸업이수학점 축소 문제는 3학점 보상을 통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영대학, 무용대학, 음악대학, 정경대학, 호텔관광대학이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2018학번 학생들의 졸업이수학점을 기존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상위 규정인 학칙 개정 없이 단과대별 내규만을 고쳐 우선 시행한 점도 논란이 됐다. 당시 제50대 총학은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연서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학교는 문제 제기를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다섯 개 단과대 2018학번 학생들에게 3학점을 추가로 들을 수 있도록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캠 총학 김영우(호텔경영학 2016) 부회장은 “다전공생의 학점 부족, 수업 이수 축소 우려 등 파생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면서 “많은 학생들의 공분을 샀던 절차 문제만큼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의 정책 시행에 앞서 총학이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내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조별 과제 등의 모임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

소통간담회, 의견수렴, 현황조사 등 밑그림 마련에 성과
공간부족 해소, 회칙 개정 등 구체적인 실현은 방학 이후 기약



김수혁(왼쪽) 회장과 김영우 부회장은 교육권 보장을 강조했다.

다는 불만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총학은 선거 당시 단과대별 구분을 넘은 공용 공간 확보로 공간부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단과대별 수요 및 공간부족 사례를 조사했고 현재는 건물별로 공용공간화 가능한 공간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과약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Info21 시스템에 공간 대여 신청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SPACE21 1단계 사업으로 완공된 건물은 임시사용승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동대문구청은 2016년 대법원이 경희대로 부지 일부가 경희학원의 사유지이므로 구청이 부당이득금과 사용료를 지불

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경희대로를 공공도로로 기재한 해당 건물들의 건축인허가서 내용과 상충한다며 사용승인을 반려했다.

김 회장은 “총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고 법인에도 면담 요청을 할 계획이다”라면서 “현재로서는 당장 해결을 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당사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여름방학 중이나 2학기 초부터 경희대로 갈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성원 단체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총장 선출제 문제에 대해서는 김 회장은 “구성원 사이의 오해도 있고 법인과

본부 간의 논의 절차에 대해 구성원들이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다”며 불명확한 소통을 원인으로 짚었다. 그는 “구성원 의견을 모아달라는 이사장 말대로 진척을 위해서는 우선 구성원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런 논의를 위해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인데 교수회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협상에 불응하는 형국이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선거운동 방식이나 법인 규정안의 독소조항 등 다뤄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투표반영비용을 둘러싼 갈등에 모조리 매몰돼 버린 상황이 안타깝다”고도 밝혔다.

이밖에도 총학은 회칙 개정의 일환인 재정운영회칙 제정, 학내 차별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치규정 신설이 가시화 단계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그간 총학 업무 가운데 관련 규정이 없거나 사문화 돼 자의적이거나 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면서 “회칙 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총학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거 당시 인터뷰에서 경희대로 선본은 ‘사전예방’과 ‘학생자치 강화’를 주요 가치로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올해 초 총학과 단과대별 학생회가 구성된 후 본부에 요청해 열린 소통간담회를 실천한 사례로 꼽았다. 소통간담회에는 학생 대표들과 총장 직무대행, 부총장, 각 행정 부서장 등이 참석해 학생회의 주요 공약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학교의 사업과 정책 시행 계획을 공유 받았다. 김 회장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곧 중간점검 차원의 간담회를 더 열고 나아가 앞으로도 정례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복지 공약 원할...건축 관련 공약 불분명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김혜준 기자 khj_hyejun@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제51대 이름 총학생회(총학)는 현재 임기의 중반을 달리고 있는 만큼 논의 중인 사항이 많았다. 총학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서명운동을 받고 낙후된 제2기숙사 뒤편 셋길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가로등 전구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생 이용 시설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 취식실과 휴게실을 복원해 이르면 2학기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앙도서관 열람실에 노트북 사용 공간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는 실현이 요원하다. 학교는 가능한 제2열람실의 우선 LAN 좌석과 AV실을 이용해달라는 입장이다.

투명한 재정 공개를 위해 자치회비 감사단을 구성하겠다는 공약은 다소 수정돼 이행 중이다. 전 회장은 “소수의 구성원끼리 평가하는 것보다 다수의 학생들이 평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해 감사단을 구성하지 않았다”며 “내부 평가를 통해 2학기 운영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과목 개선을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강좌 개설, 수강신청제도 개선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결과 ‘음식과 문화: 글로벌&로컬 트렌드와 이슈’ 강좌가 개설됐다. 수강신청에 대해 전 회장은 “수강신청제도의 잦은 변화는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취소신청지연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학생 복지 공약은 활발히 실천했다. 7개 건물에 유·무인 편의점이 입점하면서 학생

총여 존폐 총투표 실시, 유·무인 편의점 설치 성공
건물 리모델링 착공 시기, 캠퍼스 이원화 논의 미지수



전완주(왼쪽) 회장과 이지은 부회장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학생 요구사항이 있었던 학생식당(학식)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총학은 교내 학식 개선 협의 TF를 구성해 매달 학식을 이용하는 학생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3월 총투표를 통해 폐지가 결정된 총여학생회(총여) 대신 총학 산하 기구인 성평등인권위원회(성평등위)를 운영했다. 성평등위는 총여가 진행하던 시험기간 새벽 교양이 버스 운행, 여성용품 지원, 몰래 카메라 탐지 및 예방 등의 사업을 지속했다.

공간과 관련한 공약 이행은 아쉬웠다. 총학은 미래과학관 착공, 캠퍼스 노후 공간 리모델링, 공과대학(공대) 파빌리온 준공 등 공간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소동위원회에서 미래과학관 착공을 논의했지만 당

장 공사를 시작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교외 재원 조달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어대학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도 기금이 확보돼야 한다. 단과대학 리모델링 계획은 학교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하계 방학에도 진행되지 못할 예정이다. 전 회장은 “공약했던 리모델링 학생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단과대학에 전임한 상태다”며 “총학의 역할은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단과대학별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직 삼을 뜨지 않은 공대 파빌리온 준공 역시 공대 행정실과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하며 총학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이원화 문제는 답보 상태다. 전 회장은 “이원화 문제를 대평의

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총장선출제가 워낙 중요해 다른 안건은 자주 다루지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덧붙여 “그렇지만 캠퍼스 간 전과 기준 차이를 개선하는 것은 올해 안에 꼭 해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국제캠 학생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생활협동조합(생활) 유치를 위한 프로세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생활은 서울캠에 본부를 두고 국제캠에 지부를 두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소통 문제가 발생해 난항을 겪었다. 전 회장은 “유치에만 주력하기보다는 생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총학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학생청원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공약 역시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전 회장은 “학생들이 겪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확정된 정보만을 공유하다보니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장구 관리를 위해 내부 부서를 신설하고 담당자를 증원한 만큼 2학기에는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축제를 꼽았다.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계획과 다르게 70주년 행사 규모가 간소화된 것이 문제였다. 일주일 전에 협업을 취소한 업체도 있었다. 전 회장은 “2학기에는 미리 준비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학기에는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는데 집중했다”는 전 회장은 “2학기에는 축제와 e-sport 대회를 진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내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인 총장 후보추천규정에도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